

원로 엔지니어의 평양방문기

대동강변에도 경제기적을...

# 남북한 과학기술 접목 평양에 선진공업 창조

馬景錫

〈한국엔지니어클럽 명예회장〉

### 56년만에 찾은 평양땅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가족으로 운이 좋게 선발되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86세의 옥돌누나를 56년만에 만나 이산가족의 한을 말끔히 풀었다. 평양시가는 잘 설계

되어 있었고, 높고 낮은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고, 도로는 환하게 트여 있어, 2천년 전에 건설된 로마의 도로가 연상되었다. 그리고 서울과 같은 교통지옥은 영원히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조선 적십자 여러 안내원들의 정성어린 접대에 우리 1백명은 우선 깊이 감사드린다. 남과 북이 들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순안공항에 내리자마자 직감하였고, 55년만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다는 기쁨은 감출 수 없었고 흥분은 계속되었다. '인생 도처 유 청산' (人生到處有青山)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경상도대통령, 전라도대통령이 엄연히 있었고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월남한 실향민은 38따라지의 역경을 역세게 헤쳐 나왔고, 남남북녀는 옛말이고, 분단 후 50년이 지난 오늘에는 북남북녀임을 입증하였다.

나는 1945년 9월에 함북주에서 경성대학 이공학부의 학생신분으로 단신 상경한 이래 56년이 지난 지금에는 80세의 할아버지가



평양 순안공항에 내린 남측 방문단(필자 맨앞)



되었고, 신혼이었던 누나는 86세의 증조모가 되어있었다. 하지만 만나자마자 알아보았고 울고 또 울었다. 피는 영원함을 체험하였다. 그간 고향에서는 아버님은 86세에, 어머님은 91세에, 두분의 형님과 두분의 누님들이 작고하셨고, 우리 집안은 장수집안이라고 자랑하며 올라비도 오래오래 살라고 당부하는 누님에게 누나와 정순이도 1백살까지 살아야 한다고 부탁하였다.

통일이 되면 고향의 가족묘지에 모신 부모님의 산소에 같이 성묘하자고 굳게 약속하고, 아버님 어머님의 초상화를 누님에게 드렸다. 그리고 이승에서 못한 효도를 저승에서 할 수 있도록 가족묘지의 끝자리를 남겨 두라고 하였고, 누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 83세의 옥련 조카와 내게 평양에 돌

아오라는 권유에, 나도 그런 뜻이 있다고 했다.

1970년대 박정희대통령시절에 비료공장, 석유화학공장 건설사업부장이 되어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였다고 자랑하였더니 북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정순이가 나에게 당부하였다. 서울을 떠날 때 옥련 조카가 준 10만원을 누나에게 주자 북의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미화 3백달러를 되레 받아 왔고, 누나가 동생에게 준 선물로 이를 오래 오래 간직하려고 한다.

### 남북한 과학기술 접목

광복 후 55년사이 UN에 새로 가입한 신생국가가 50여개 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운택한 나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

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서 연간 4~5억달러의 무상경제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야만 하였고 그리고도 매년 지겨운 보릿고개, 쌀배급, 3할 잠곡혼합식, 분식 등으로 굶주림을 해결하였던 것이 30여년 전 한국이었다.

그러나 북에서는 2년 전 소리없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투하해서 미국·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북은 과학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남보다 앞서 있고, 그 반면에 남에서는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외국에서 산업기술을 도입하여 공장들을 빨리 많이 건설가 동함으로써 70년대에 한강변의 경제기적을 건설하였다.

그러므로 북의 자체 개발한 앞선 과학기술과 남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6년만에 평양을 찾아  
86세의 누나를  
만났다.  
분단 55년 ...  
다시 밝은 평양시기는  
질서정연하고  
교통이 원활했다.  
과학기술인으로  
3일동안  
평양에 머물면서  
나는 북(北)의 자체 개발한  
앞선 과학기술과  
남(南)의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로  
대동강변의 경제기적과  
선진공업국을 창조하여  
살기 좋은  
통일조국 건설을  
앞당겨야 하겠다고  
느꼈다.

누님에게 부모님의 초상화를 건네주고 있는 필자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성공한 산업기술을 잘 접목하여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로 대동강변의 경제지적과 선진공업국을 창조하고, 살기 좋은 통일조국을 건설할 것을 역설하였다.

서울공과대학 학장으로 계시던 이승기박사가 홍남에 비날론 공장을 처음 건설하였다. 비날론 공장과 홍남공업단지의 여러 공장들을 남의 기술인들이 보고 싶어하고, 남에 건설되어 잘 가동되고 있는 대전과학연구단지, 포항종합제철, 현대중공업, 삼성반도체공장, 원자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을 북의 과학기술자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고 제의하였다.

### 은사 추모행사 계획

암담하였던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이승기박사는 일찍이 일본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에서 비날론(Vinalon)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합성과 방사에 성공하여 일본을 합성수지 제조국으로 격상시키자 경도제국대학에서는 이승기박사를 조선인으로서 처음으로 1939년에 대학교수로 승진시켰다. 이 사건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알리는 계기도 되었다. 이승기박사는 광복 후 귀국하여 서울공과대학 학장으로 계시다가 1950년 7월에 월북하여 비날론의 공업화에 성공하였고, 홍남과 순천에 비날론 공장을 건설한 바 있다.

그 후 96년 2월 91세에 노환으로 타계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남쪽 제자들은 장례식에 참석 못한 것을 아쉬워했었다. 이에 2000년 초부터 서울공대 제자들은 조총련(朝總聯)을 통하여 2001년 2월 8일이 이승기학장의 5주기가 되므로 비날론 공장에 가서 은사의 추모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였다는 사실도 알려 주었다.

지난 6월15일에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합의 후에, 백두산과 한라산의 교환등반, 농구선수들의 교환경기, 소년소녀 예술인 교환공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은 남북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역할에는 도움이 되지만 나라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큰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공동서명 이후 한국의 주식시장은 급락을 계속하고 있고 6개월 동안 주식값이 반으로 폭락하고도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 남·북 힘모아 또한번의 경제지적을 ...

그래서 하루빨리 남과 북의 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건설을 깊이있게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중대한 문제를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있어 과학기술인들이 서두르자고 설득도 했고, 한강변의 경제지적을 주도한 남의 산업인들이 북과 함께 대동강변의 경제지적과 선진조국 건설, 나가서 조국통일을 성취하자고 제의했다. 천만다행으로 평양에 갈 수있는 모처럼의 기회였기에 이외에도 많은 생각을 북의 형제들에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전했다. 기술자 교류를 위하여 나를 초청하면 기꺼이 평양으로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

남과 북의 과학기술인, 산업인·기업인들이여! 우리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합시다. 우리는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었고 계속 그 역할을 다 합시다. ㉞